

멜후리 그물잡에는 계장이 으뜸이고 공원이엔 허는 동 소임이 있주.

이 옛말은 멜어장에 풍어 들게 해주는 도채비 이야기라. 옛날사 멜후리 어장이 있는 동네에선 다 도채빌 위해신걸.

멜후리 그물잡이 모이면 멜 잘 잡게 해줍센 도채비 모셔당 제 지내는 일을 공원이 허주.

공원 한 사람은 젊고 또 한 사람은 나이든 어른인디, 이제는 제물을 짚어지고 도채빌 모시레 가는 거라. 도채비는 저 한동 지경이 많거든. 나이든 이가 젊은 공원한티, 너랑 이디 아뭇 소리 말앙 앓앙이시민 내가 가서 도채빌 모셔오마고 하고는 혼자 제물을 짚어지고 가거든.

저만치 간 제물을 부려놓고,

“영감, 계십니까?” 부르니,

“어. 거 오래간만일세. 어떻게연 왔는고?”

허는 대답소리가 나.

나이 많은 이허고 도채비가 서로 인사를 나눈다 말이며.

“이거, 약소헌 제찬이주마는 조금 응감하시라고 짚어전 왔수다.”

“허, 나 해주는 일 없이, 이렇게 반앙 뭇로 보답을 허쿠?”

도채비가 막 고마왕 하여가난, 나이든 공원은 이젠,

“뭇 걱정해염수파? 영감님은 하늘과 땅을 다 통허는 어른 아니파? 올해 멜 어장이나 부디 잘 되게 해줍서.”

영 공손허게 부탁을 헌단 말이지.

“아, 그것쯤이사 내 못허겠는가.”

그렇게 해두고 그 해에 멜어장에 철이 되니, 마파람이 탕, 한 주제 불어자천.

보니 멜이 돛뽕 쌓였단 말이며. 그물을 칠 수가 있어야지. 마침 썰물이 나서 와! 멜이 바다물과 같이 밀려나갈 참인디, 불덩어리가 휙 날아와 가지고 탐방탐방 무자맥질을 허멍 멜이 밖으로 못나가게 막아 주는거라.

날이 밝으니 사람들이 모여들언 멜고리로 막 퍼내었지.

멜풍년이 들기를 세상나서 처음이라곤 할 정도로 기맥힌 풍년이었주게.

다 그 도채비가 도운 덕분이었주.

경했는디 그 뒷해 공원은 도채비 모실 줄을 몰랐던 모양인가, 치성을 잘 못허고 제를 지냈단 말이여.

이제 멜어장이 열린난 당선들이 바당에 나가서 개코를 부치고 멜떼가 들때까지 한 숨 잤던 말이여.

아, 한 숨 자고 일어난 보니 제주섬이 없어져 부렸어. 이게 무슨 조화라. 그때 했댄허는 재미 있는 말이 있주.

“우리가 우리가 아닌가? 우리가 우린가?”

막 겁이나서 종선을 타고 그냥 마을로 돌아왔주. 그물이고 배고 다 저 먼 바다에 던져두고 몸만 겨우 살아온거주.

공원이 도채비 좋아허는 제물을 잘 안차린 탓이엔, 경해서 요렇게 멜어장을 놓쳤댄 했다해여.

경허난 도채비 위하는 음식으로, 대축범벅, 대축 오메기떡이 제일이라.

음식을 또 잘 마련했다고 도채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고들 해여.

다 팔자에 타고나야 도채비를 어르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.